

‘물의 마법사’라고 불리웠던 사람, 빅터 샤우버거(Victor Schauberger)의 에코테크놀로지(Eco-Technology)

허창욱 (한마음에너지 과학연구소 신과학연구센터장)

이제 지구세계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21세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나갈 것일까? 20세기말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화두 중의 하나였던 환경과 생태계보존의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기 보다 어쩌면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 있다.

돌이켜보면, 과학기술의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은 서로 미묘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오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환경보존문제를 생각할 때에, 한편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이라는 것이 환경문제를 결코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하여야 결국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여전히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하나의 실마리를 얻게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필자는, 1950년대에 <에코테크놀로지(Eco-Technology)와 임플로전(Implos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미 인류에게 제시하였던 빅터 샤우버거라는 이색적인 과학자를 몇 년 전 국내에 처음 소개하였었다. (올프 알렉산더르손 지음, 허창욱 옮김, <아이슈타인은 틀렸다-빅터 샤우버거 이야기>, 양문출판사, 1998)

빅터 샤우버거(Victor Schauberger)라는 이름은 정통 과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전혀 낯선 이름이지만, 그의 독창적인 이론과 그가 제시하였던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등은 1980년대 이후부터 소위 뉴에이지운동을 옹호하는 일부 진보적인 과학자 그룹을 중심으로 대단한 관심을 끌고있는 상황이다.

그다지 환경과 생태계파괴가 심각하지 않았던 1930-50년대 무렵에, 이미 인류를 향해 선구적으로 에코테크놀로지(Eco-Technology)를 외쳤던 그의 독창적인 신과학기술 개념은 그가 죽은 지 몇 십년이 지나서야 등장한 여타의 환경보존 관련이론들에 비해 더욱 본질적이고 구체적이며, 무엇보다도 생태계라는 개념의 새로운 자연법칙을 이미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생태계라는 개념조차도 전혀 인식되고 있지 않던 그 시절에 그는 전 생애를 거쳐 수많은 강연과 기고 활동을 통해 에코테크놀로지의 절실함을 부르짖었고 또한 그의 에코테크놀로지 개념에 따른 수많은 획기적 발명들을 선보였다.

과학기술의 개발에 앞서 자연에 대한 참된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빅터 샤우버거는 자신의 과학기술과 철학을 표현하는 말로서 ‘C²-에코테크놀로지(Eco-technology)’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그가 특이하게도 ‘C²’이라고 표현하고있는 이유는 ‘자연’을 이해하고 난 뒤에 자연을 모방해야한다(Comprehend and Copy Nature)’라는 그의 철학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1885년에 오스트리아 북부의 울리크스베르크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과학과 기술을 배우는 기존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연과학에 입문하였고 그 이후 스스로 발명가의 길을 평생토록 걸어갔는데, 여기에는 어릴 적 그의 집안배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삼림을 관리하고 가꾸는 프로페셔널 삼림꾼들이었다.)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을 따라서 전혀 훼손되지 않은 대자연 속에서 성장하였던 그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의 대자연이 진짜 어떠한 모습인지를 실제로 오랜 시간동안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대자연의 본질과 자연현상의 객관적인 법칙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통찰력을 키워나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평생토록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 - '자연을 먼저 확실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난 뒤에 그 자연법칙을 이용하라'고 그의 말을 일부분 직접 인용해보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의 가장 커다란 갈망은 대자연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 끝에 그 신비의 문을 넘겨다보게 되었을 때 내가 알게된 그 진리는 기존의 학교 수업이나 혹은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도 결코 들어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오직 대자연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줄 수 있다....인간이 파괴하지 않은 대자연속에서의 자연현상들이야말로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해주고 있다. 인위적으로 무작정 자연을 개조하기 이전에 먼저 자연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이 거의 살지않는 대삼림속에서 삼림감시인으로 근무했던 덕분에 실제 대자연과 호흡할 수 있었고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원리와 법칙에 눈을 뜨게 되었다. 아주 훗날에야 나는 이 자연과학법칙을 '우주적인 소용돌이-응축(Implsion)'이라고 표현하였다..."

삼림감시인으로 일하던 젊은 시절에 그는 대자연 속에서 관찰되어지는 다양한 객관적인 자연현상들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품게된다.

예컨대, 산 속 계곡을 흘러 내려오는 저 시냇물은 왜 굽이쳐 흐르는 것일까? 그리고 거세게 흘러내려오는 급류를 오히려 거슬러 손살같이 헤엄쳐 올라가는 저 송어의 추진력이 과연 물고기의 지느러미 운동만으로 가능한 것일까?

산 위의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저 새는 전혀 날개짓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토록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일까?(이러한 의문을 더욱 커다란 자연현상으로 확대하여).... 텅빈 우주 공간상에서 지구는 어떻게 자전과 공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일까? 더 나아가, 도데체 우주의 은하계는 왜 소용돌이 형상을 하고있는 것일까.....?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대자연을 계속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연에 대해 실제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음을 깨닫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물의 마법사, 생명의 물(Living Water)을 말하다

빅터 샤우버거를 이해하고 또 그의 주장을 옹호하였던 사람들은 그를 물의 마법사라는 호칭으로 부르곤 하였다. 빅터의 관찰과 통찰력에 따르면, 대자연의 신비와 그 법칙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간직하고있는 것이 바로 물이었다. 또한 물은 그만큼 생명과 우주의 창조와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빅터는, 지구생태계에서 물이 담당하고있는 역할이 마치 인간의 몸에서 피가 담당하고있는 역할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 최초의 사람일 것이다.

지구생태계 차원에서, 계곡물과 강물이 오염되는 것은 우리 몸의 피가 더러워진 것과 동일하다. 자연스러운 물길의 황폐해지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더디워져서 심각한 동맥경화증에 걸린 것과 동일하다. 그리하여 이제 물이 마르면, 마침내 피의 흐름이 끊겨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이 지구생태계는 사막화되어간다. 이러한 주장을 빅터는 1920년대부터 이미 절실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의 관점에 따르면, 물(H₂O)이란 단순히 하나의 화학적인 화합물로서 판단될 수 없는, 생명을 잉태시키는 신비로움으로 가득찬 그 무엇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연구소에서 배우고 또 다루고있는 물 자체가 이미 원래 물이 지녀야하는 중요한 물의 성질을 지니고 있지않는 ‘죽은 물’이다. 이러한 ‘죽은 물’을 통해서는 물의 본질과 그 속에 내재한 자연의 신비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 실제로 대자연 속에서 천연적으로 자유롭게 흘러가고있는 ‘살아있는 물’만이 물의 본질과 그 신비에 대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보여주고, 우리가 그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해주게 된다.....”

따라서 대자연과 유리되어 실험실과 교과서를 통해서만 물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는 기존의 관찰방법으로는 물의 실제적인 모습과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그는 거듭 강조한다. 우리의 옛 속담에도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빅터는 흐름을 멈추어버린 물은 이미 죽은 물이라고 말하고있는 것이다.

‘물’과 ‘물의 흐름’은 결코 떼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의 흐름’이라는 개념은 단지 액체로서의 물의 흐름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기체와 고체상태로 변화해가면서 지구생태계를 완전히 관통하는 순환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순환체계야말로 생태계 전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장 근원이라고 그는 말하고있다.(이러한 관점은 빅터가 우주 전체를 놓고 그 신비의 자연법칙을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진다. 우주 전체는 끊임없는 운동 속에 놓여있다. 지구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회전운동(자전)과 태양을 중심으로 원 운동(공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계는 또 그 중심을 향하여 소용돌이치면서 회전운동을 계속하고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운동이 정지되어 버린다면, 대우주라는 존재 자체도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대자연의 생성과 유지 소멸의 핵심원리로서 ‘운동’이라는 개념을 핵심개념으로 삼고있다는 점에서 빅터

는, 우주 변화의 원리로서 역(易)을 내세웠던 고대 동양의 정신체계와 대단히 닮아있기도 하다.)

물의 요람인 숲이 이미 파괴되었다

물과 물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것이 삼림이다. 숲이 파괴되면 이어서 생태계의 모든 것이 변한다. 가장 먼저 물길인 원래의 천연적인 흐름을 잃어버리고 거칠어지며 이어서 홍수가 빈번해지고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로서 결국 물길인 완전히 말라버리게 된다고 빅터는 경고하였다.

“...숲의 죽음은 인류의 죽음에 대한 전주곡을 의미한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는 숲이 인류의 생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숲이 사라지면 물이 사라지고 물이 사라지면 먹을 거리도 사라지고 먹을 거리가 사라지면 모든 생명체도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야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토양, 물 그리고 공기등을 오염시킨 바로 인간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직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있던 1930년대에 이전에 이미 빅터는 절실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말하는 ‘숲의 회복’이란 오늘날에야 사람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숲’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은 여하간 급한 재앙에 대한 미봉책은 되겠지만 정상적인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또 마찬가지로 그는 강조한다.

“.... 숲이란 우리 인간이 파괴하고 약탈해도되는 자원의 창고가 아니라 생태계 내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한 부분이다....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숲이 아닌 자연적인 대삼림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제멋대로 혼합되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무질서는 마치 우리들에게는 불규칙적인 혼돈상태인 것처럼 비추어진다. 하지만 숲은 대자연의 일부분이고 그 자체로 이 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계의 진실한 조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상업적으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있다.... 그러나 대자연은 분명히 이러한 무질서—인류의 지식에서 볼 때에 혼란스러울 뿐인—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러한 무질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심한 관찰과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

또한 빅터는 ‘자연림은 주위 대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있는 센터’라고 강조한다.(그가 말하는 에너지란 동양적 개념의 기(氣)와 같은 아주 미묘한 생명에너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개념은 농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빅터는 농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발명들을 남기고 있는데, 그의 가장 주 관심사는 결국 황폐해가는 땅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오늘날의 농부들은 어머니 품과도 같은 대지를 마치 매춘부보다도 더 함부로 다루고 있다. 해마다 독약과 같은 화학비료와 농약이 대규모로 땅위에 뿌려지고있으며 결국 이러한 파괴행위를 하느라고 힘든 노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오히려 해마다 수확량이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앞에서 당혹해하면서 그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해 한다.... 이제 식물들은 부패한 땅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러한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난 곡식은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씨앗이 될 뿐이다.... 이대로 가면 결국은 농토는 계속 황폐화되고 농가들은 폐가로 변해갈 것이다....”

화학농법과 기계농법에 반대하여 빅터는 자연스런 농사법(Natural Farming)을 강조하였는데, 생명과 자연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자연스런 농사법이 화학농법보다도 곡식수확면에서 훨씬 월등하다고 그는 말한다.

예를 들어, 그는 나선형 모양의 새로운 쟁기를 발명하였는데 이 나선형쟁기는 기존의 쟁기처럼 땅을 깊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면의 토양만 갈아엎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빅터는 땅을 깊게 갈아엎는 기존의 쟁기질은 토양 미생물의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결국 토양을 매마르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그는 이 쟁기를 철로 만들지 않고 구리로 만드는 것이 땅의 생명력을 오히려 손상시키지 않고 분돈아 줌으로서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실제로 여러 농가에서의 실험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였다.)

우주적 소용돌이—Implosion에 대하여

빅터가 주장하고있는 실제 자연법칙으로서 ‘나선형과 소용돌이의 법칙’ 혹은 ‘응축(Implosion)’이라는 이 낯선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오천년전 고대 동양의 경전인 《역경(易經)》의 한 대목을 인용해보자. 《주역 계사전》에서 가장 흔하게 인용되는 저 유명한 구절은 이러하다.

‘한번은 음(陰)이 되고 한번은 양(陽)이 되는 것, 이것을 도(道)라고 한다.(一陰一陽之謂道)’

역(易)을 ‘변화의 서(The Book of Change)’라고 표현하듯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속성이며 그러한 변화의 원천은 음과 양이 번갈아 순환하는 때문이라고 역경에서는 말해놓고 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우주의 변화는 단순히 무질서한 카오스 상태가 아니라 아주 지극한 조화와 질서를 유지해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 또한 바로 ‘음양의 순환과 조화’ 때문이라고 역(易)은 말한다.

빅터 샤우버거가 대자연을 바라보는 방식도 이와 지극히 유사하다. 그는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음과 양, 밝음과 어두움, 따뜻함과 차가움, 남과 여, 밀고 당기기 등과 같이 양면성을 지니고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양극성이 존재하지않는다면 자연계에는 아무런 인력과 반발력도 존재하지않을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운동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대자연의 모습과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참된 자연법칙을 우리가 실제 구체적으로 관찰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운동과 그 형태’라고 빅터는 말한다. 이 ‘운동’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빅터가 통찰해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보자.

아마도 가장 먼저, 인공적인 손길이 거치지 않은

천연의 대자연속에서 자연이 운동하는 형태들을 관찰해보았을 때 먼저 '자연에는 직선적인 운동이나 형상이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연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인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곡선적인 운동은 얼핏 보면 대단히 무질서해보인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하얀 도화지에 제멋대로 곡선을 그리며 낙서를 하듯이..... 하지만 더욱 세밀히 관찰해보면 아주 다양하면서도 대단히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곡선운동이 자연계에서는 쉽게 관찰되어진다. 이것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나선형 운동(Spiral Motion)과 소용돌이 운동(Vortex Motion)이다.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생명현상과 관계된 것-예를 들어, DNA의 이중나선구조나 소라껍데기의 소용돌이모양의 나팔관형태 등등-에서 이 형태를 가장 쉽게 관찰해볼 수 있다. 빅터 자신은 가장 먼저 물과 물의 흐름을 관찰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나선형 운동과 소용돌이 운동이 바로 물의 본성-더 나아가 대자연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빅터가 말하고 있는 바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소용돌이치는 우주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있는 태풍의 소용돌이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태풍은 왜 발생하고 또 왜 소용돌이치는 것일까?

태평양 한바다에서 태양열을 받아 서서히 더워진 공기는 자연히 위로 상승한다. 대량으로 공기가 위로 상승해버리면 원래의 그 자리는 공기가 희박한 저기압상태가 형성되고 다른 주위로부터 공기가 자연히 밀려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체계적인 불균형상태가 야기되어져야 한다. 공기밀도가 희박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공기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양극성이 바로 공기바람이라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의 운동은 산들바람처럼 아주 가볍게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양극성의 차이가 심하고 또 그 규모가 방대해지면 공기의 운동은 이제 태풍으로 화한다. 공기가 아주 희박한 지역으로 주위에서 아주 빠르게 몰아쳐 들어오는 공기의 운동은 자연스럽게 소용돌이치며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 소용

돌이운동이 시작되면 이제 공기바람은 태풍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소용돌이현상 그 자체가 우주의 대표적인 창조법칙의 실례라고 빅터는 말한다. 그냥 고요하던 대기권속에서 공기의 소용돌이운동에 의해 태풍(혹은 토네이도 등)이라는 거대한 에너지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이 우주는 마치 아무런 형태도 없는 진공과 같은 무(無)의 상태-혹은 순수한 창조적 의식상태-에서 홀연 에너지가 생겨나며 이 에너지가 또 고도로 응집되어 구체적인 형태의 물질체가 생성되어 나온다고 그는 설명하면서 이 에너지와 물질의 물현화과정은 바로 '소용돌이운동'과 같은 형태로 대변될 수 있는 이른바 '응폭운동(Implsion)'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이나 바람과 같은 매질이 소용돌이의 중심을 향하여 휘몰아 들어갈 때 이 소용돌이의 방향은 시계방향(우선운동) 혹은 반시계방향(좌선운동)의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게된다. 이처럼 새로운 양극성으로서, 회전방향성이 다른 또 두 가지 형태의 소용돌이운동 혹은 나선운동이 창출되는데, 이 두 가지 나선운동이 입체적으로 중첩되어 일어날 때 이것을 '이중나선 응폭운동(Implsion Spiral)'이라고 호칭하며 이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고에너지가 다시 창출되어진다고 빅터는 말하고있으며 이것이 그가 말하는 '응폭(Implsion)' 이론의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형태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이었다.)

엔트로피감소-생명의 기술(Implsion)과 엔트로피증가-죽음의 기술(Explosion)

오늘날 우리는 소위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아주 편리한 문명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예컨대,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하고있는 자동차의 경우를 들어보자.

매일 혹은 주말이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는 직선으로 곧게 뻗어있는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려간다. 이 자동차를 달리게 만드는 힘은 휘발유

즉, 화석연료를 엔진 속에서 태웠을 때 발생하는 폭발에너지가 그 근원이다. 다이내마이트에서부터 지금의 핵폭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연료가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인류가 사용하고있는 주된 동력원인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폭발은 당연히 '팽창형 폭발(Explosion)'이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폭발(Explosion)에 너무나 익숙해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외히 자연법칙이라고 여기고있는 실정이다. (이 법칙을 과학교과서에서는 '열역학법칙'이라고 호칭하는데, 현재의 과학이론에 따르면 자연의 절대법칙이라고 여기고 있는 3개의 열역학법칙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에너지보존의 법칙'-즉, 에너지는 절대로 무에서 생겨나올 수 없으며 형태만 변할 뿐 그 총량은 동일하다-이고, 두 번째가 소위 '엔트로피증가의 법칙'-에너지가 사용되면 반드시 무질서가 증가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팽창형폭발(Explosion)은 이 두 가지 열역학법칙을 그 과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휘발유를 너무 남용한다든지, 유독가스가 배출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주된 논쟁거리가 될 뿐이지 여기에 사용되는 과학기술 그 자체가 문제거리로 거론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빅터 샤우버거의 견해는 완전히 다르다.

실제 자연계에서는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있는 것과 같은 엔트로피증가의 '팽창형 폭발(Explosion)'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빅터는 말한다. 역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과학기술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식은 자연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적인 방식으로서 이는 곧 소중한 자연을 태우고 그로서 쓰레기만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저급한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저급한 정도가 아니라, 그 결과가 필연적으로 파괴를 초래하는 '죽음의 기술'이라고 그는 단적으로 말한다. 인류가 파멸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방식을 벗어 버리고 실제로 자연이 사용하고있는 엔트로피감소의 법칙인 '응폭(Implosion)의 기술'을 배우고 모방해야한다고 빅터는 역설하였으며 실제로 그러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상에 보급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평생을 바쳤던 것이다.

소위 과학기술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하여 과학자들은 합리적인 이론체계와 실험검증을 통한 보편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객관성은, 빅터 샤우버거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당연히 그의 이론과 발명들은 보편적이고도 정확한 검증작업을 통하여 객관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그 또한 그가 알게된 것들 혹은 그의 가설을 이제 대중들 특히 과학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나가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의 노력의 대부분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거의 주목받지조차 못하였던 것 같다. 어쩌면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이 대단히 환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예견하였던 환경파괴라는 비극적 상황은 거의 대부분 이제 현실로 드러나 있다. 그의 말 그대로, 지구 전체가 황폐화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그의 주장들은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생태계파괴를 돌이키고 환경보존을 아우르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이라는 숙제를 떠맡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길잡이로 삼을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되는 바이다. ●